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7시 30분 7시  
오전 (4부) 7시 30분 7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3월 23일 (제 734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 똥 공장

나는 얼마 전에 손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요즘 밥이나 먹고 똥이나 만드는 똥 공장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안 된다. 호사유리 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이라고 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 이름 석 자는 후손에게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니? 역사에 백을 굶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이를 수 있다. 성공은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따는 열매야.”

어른들이 하는 일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두고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자들을 거리낌 없이 ‘똥 공장’이라 부른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노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일 그 날이 그 날이고,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이젠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저래서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시기가 안 좋고...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불가능’이란 결국 똥 공장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의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S=X+Y+Z”라고 짧게 썼다. 이것이 똥 의미하는지 묻자, 그는 “S는 성공이며, X는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 Y는 생활을 즐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Z는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손에 쥘 수 있다는 뜻이다.

달걀이 사람에 의해 깨지면 달걀 프라이 밖에 될 수 없지만, 달걀이 스스로 깨지면 새 생명인 병아리를 낳는다. 스스로 움직여서 도전하고, 배우고 노력하면 소망, 성공이라는 병아리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남에 의해 깨지는 달걀이 되지 말고, 스스로 깨쳐 나가자는 자가 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배우고 노력하라.

## 광고하지 않으면 누가 알라?

인천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바람이 우리 교단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목사님은 3주 연속으로 인천교회 주일 및 수요일예배를 인도하시며 교단의 모든 교역자 및 성도들이 ‘똥 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셨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인천교회는 지속적인 총동원을 통해 부흥의 불이 붙었다. 이에 자극된 서울교회도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전 및 오후 예배 연속으로 88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날의 의미는 목사님

락을 누리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벌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광고한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며, 무엇보다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항상 열매를 내는 과실수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보석으로 지은 집 등,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부족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암흑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무서운 형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천국행 티켓을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미국에 가고 싶어도 미리 전자비자를 신청하고 항공티켓을 예매해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천국비자와 천국행 티켓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인생을 예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천국을 선택하느냐, 무시하고 지옥을 선택하느냐는 오로지 여러분 몫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전하는 광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예수



서울예수중심교회 총동원 주일에배(2014. 3. 16)

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 제작한 5분짜리 영상이 압축하고 있었다. 동서독 통일, 시발점이 된 라이프치히의 월요기도회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가 부천과 잠실성회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여세를 몰아, 오는 5월 20일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성회’를 개최하는 당위성을 역설한 광고영상은 비록 짧지만 매우 강렬하게 이날의 설교주제와 맞닿아 큰 은혜가 되었다.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봉독하시며 하나님 자신부터 광고하셨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광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

고통의 올바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모시고 온 분들은 바로 그 세계를 알기에 돈을 써가며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방지역 철책에는 이런 경고판이 붙어있습니다. ‘이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지 마시오.’ 그러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들어가든, 글을 몰라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든 지뢰는 터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광고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따라서 알고 무시하면, 몰라서 예수를 안 믿든 지옥의 판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광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제발 흘려들지 마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종의 대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동원령이 아니라도 전도는 그리스도천 제일의 책무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런 주문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다. 서울시청 앞 광장 기도 성회를 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하시려는 뜻이다. 그 중심에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세워 부르신 것 아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더욱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는 예수중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목사 베네수엘라 집회**  
장소: 미란다 일사: 2014년 3월 25일(화) ~ 4월 3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히1:4)

#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다

공무원들이 각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에 의해, 그리고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天國)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이니”(히1:14). 천사는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사들을 바깥처럼, 불처럼 사용하십니다(히1:7).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사건이 무려 170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찰과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 숫자는 더 많습니다. 당연히 천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히브리어 12장 22절에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고 천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

니다. 해석해주는 천사장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음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어떤 기운을 예감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되는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

말해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아브라함 내 외 에 게 아 들 을 계 시 해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였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이니”(히1:4)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 광풍이 일어 홍해를 가른 것도, 만나를 뿌린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든 것도 다 천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고를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성을 무너뜨린 일, 엘리아가 이 세



총회장 이초석 목사

벧을 피하여 로 탭 나 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음식을 전

했을 때,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라고 그들 위로한 일, 또한 소들과 고마를 멸망시키고 롯의 식구들을 구원한 일 다 천사들이 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한 불무불에 건진 일,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에게서 건진 일 모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의 인도함으로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 있을 때, 아람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 성 밖은 천지에 창이요, 깃발이 휘날리고 군대가 첩첩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방안에 기어 들어와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왕하6:16)고 말씀

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니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잔뜩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왕하6:8-23).

## 내 신분을 확실히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은 천사를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할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의 하나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천사의 존재를 알고는 유치원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량의 보행을 해지해 버리고, 밤마다 유치원 경비를 서는 경비원들도 일찍 퇴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는 길에 유치원에 잠깐 들렀는데 옆 가게 아저씨가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장님은 참 뽕이 좋은신가 봅시다.” 무슨 말인가 몰랐더니 가게 아저씨 말이 “글쎄, 밤이면 밤마다 경찰이 이 유치원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를 서주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경비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사들은 유치원을 지킬지어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목회 30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도움이 전적으로 컸습니다. 여러분도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는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십시오. “우리 아이를 지켜라.”, “천사는 이 나라를 지킬 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천사는 100%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난제도 천사를 부려 무너뜨리세요. 멀리 외국에 나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자녀로 고심 말고 천사를 파송하여 그를 지키게 하세요. 가정에도, 사업 터에도, 교회에도 천사를 투입시켜 형통케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 주신 권세도 쓰지 못하는 것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등 각기 하는 일이 다르듯, 천사도 분류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미가엘을 대장으로 하늘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장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계12:7-9)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사랑은 기다림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주창으로 성도(聖都) 예루살렘 회복에 나선 1차 십자군은 성공적인 예루살렘 공략으로 약 100여년간 중근동 지역에 십자군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슬람 세력의 분열에 힘입은 바도 컸기에 살라딘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이슬람권의 통일은 예루살렘 왕국에 큰 위협이었다. 살라딘 군의 총공세에 잔여 병력을 총동원하여 맞섰지만 역부족으로 대패한 후, 성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이 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아파의 영주 발리암 이벨린이었다. 그는 1차 십자군에 참전했다가 현지에 정착한 이탈리아인의 후예로 철저히 중근동에서 나고 자란 인물이다.

살라딘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후, 간신히 티루스로 피신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처자식을 구하기 위해 살라딘에게 서신을 보낸다. 살라딘은 평소 그를 무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던 터라 이를 허락하되 단 하루의 시간을 주며 처자식과 함께 티루스로 떠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는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보았다. 이벨린은 도저히 예루살렘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예루살렘 방어를 나서기로 결심한다. 그렇지만 그는 살라딘과 사내로서 약속을 한 상태였다. 이벨린은 살라딘에게 편지를 써서 약속 깨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살라딘은 이를 인정하고 이벨린의 처자식이 티루스까지 가는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벨린은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살라딘의 대군을 막는다. 그러나 중과부적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이벨린은 살라딘에게 회담을 청했고, 둘은 살라딘의 천막 안에서 만난다. 이벨린은 최후의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시내에 있는 5천명의 이슬람교도를 모조리 죽이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모든 이슬람의 성소와 사원을 파괴할 것이라고 단정히 경고한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1만 5천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몸값고집에 나섰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벨린 자신의 사유재산까지 내놓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살라딘은 감격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살라딘의 동생 알 아일 역시 감격해서 1천 명분의 몸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다. 살라딘은 노인과 미망인, 고아는 몸값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돈까지 주어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다. 이리하여 포로가 된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1187년 10월 9일 예루살렘은 이슬람 군에 함락되었다. 그러나 이벨린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적조차도 감동시킨 명작이었다.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더 살리려 애썼던 오스카 윈들러를 대하는 감동이 밀려온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살신성인의 자세는 적조차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내 탓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는 어린 며느리에게 '잠시 밖에 일 좀 보고 올 테니 불을 때라'고 일렀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장작을 많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무작정 장작을 많이 넣어 불을 세게 땀습니다. 그런데 밥 타는 냄새가 나서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그만 부엌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애야, 왜 그러니?"

며느리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손으로 솥을 가리키며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솥뚜껑을 열어 보더니 벌일 아나라는 듯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애야, 괜찮아.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 밥물을 잘못 앉혔구나."

조금 뒤 아들이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쿠, 아침에 내가 귀찮아서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놓았더니 물이 적어서 그랬군요. 제 잘못이에요."

조금 뒤에 들어온 시아버지는 사정을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잘못이다. 늙은 내가 아침에 근력이 부처서 장작을 굵게 패 놓고 말았더니 불이 너무 과해서 그런 모양이다."

가정의 평화가 오는 법, 교회가 아름다운 법, 사회가 평안해지는 법, 세계에 전쟁이 그치는 법, 그것은 어렵지 않다. '내 탓이다'가 아니라 바로 '내 탓이오' 하면 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눅6:41).

예수중심편집실



:: To Be Succeed ::



귀를 기울이세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그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다급한 마음에 집 앞에서부터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애써 잡은 택시의 운전기사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 데도 신호등에 걸려만 마냥 서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이 타서 자기도 모르게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길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제가 너무 급해서요."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살짝 얼굴을 돌아보고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 한 마디에 목사님은 뒤통수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독죄하리 이까'(창39)라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를 애굽에서 높이셨습니다. 곳곳에 CCTV가 많습디만 그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은 출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보고 받으십니다(마18:10).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신학주 전도사

blessecdm@naver.com

## 현재를 잡아라

독서계와 영화계의 스테디셀러로 참교육 이야기를 담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카르페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의 라틴어로, 엄격한 규율을 내세우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새로 부임한 국어교사 키팅 선생이 일러준 말이다. 이 말은 오직 명문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카르페디엠'을 자신의 성공비결로 꼽은 이가 있다. 바로 가수 현미 씨다. 올해로 노래 인생 57년째를 맞는 그녀는 대학생 시절 미8군 공연에서 갑자기 못 오게 된 가수를 대신하여 노래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구수한 입담과 솔직한 자기표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로 일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토크쇼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녀에게도 아픔은 있다. 가정사로 인해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것,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이리저리 뛰며 노래를 부르다 성대에 혹이 여섯 개나 생겨 가수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 또 몇 년 전에는 15억이나 되는 돈을 도난당하는 등 씩씩한 모습 이면에는 건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간 과거는 마음속에서 비워내고 지금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투병 중이던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청받은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정신으로 혼신을 다해 노래해 그 자리에 모인 전 세계 저명인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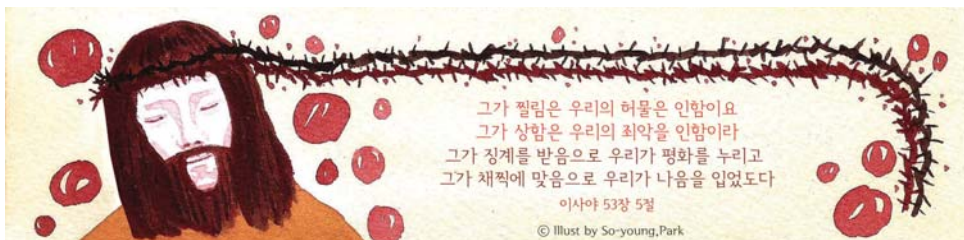
"큰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참으로 위대한 성공이다." 라고 미국의 자기 관리 철학자인 노먼 V. 필 박사는 말한다. 세상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로 거듭난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

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다(빌3:12-14).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 먼저 드리는 감사의 힘!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픈 믿음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실패나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이 비법을 써보시면 어떻게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닌 '이루심을 감사합니다.'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루심을 믿으니 감사헌금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머무르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제가 소망하던 대기업 마케팅 팀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취직하면 계속해서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의 종인 언니의 조언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과 진흥으로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뒤로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거라며 제 자신을 합리화한 결과, 최후 2인이 남은 최종면접에서 보란 듯이 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낙심한 저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리고 낙방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우연히 국내 빅5 병원 중 한곳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리 감사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순은 일입니다. 아직 서류전형도,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기도를 하더니요. 게다가 이후 면접에서도 의학적지식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도 계속 감사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예배에 당연히 하다는 듯 입사 감사헌금을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대형집회를 앞두고는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송아지는 엄마소를 닮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합격자가 갑자기 입사를 거절했다며 제가 입사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

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의 힘을 맞본 저는 이후에도 넘기 힘든 벽을 만날 때 이 비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다"(요11:41)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감사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후에 건진 신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후에 건진 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고, 방백 또한 그렇습니다. 혹시 출렁이는 바다 앞에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미리 드리는 감사의 비법을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아니면 그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니까요.

하인영

renming@daum.net

## Good News

미국의 어느 가정에 스무 세 살 된 7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금지옥으로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있을 죽은 아들의 부모님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발인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클을 잡았습니다. 순간 참석자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집중되고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윅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2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는 슬픔의 기색은 사라지고 오히려 진지한 그의 모습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조문객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혀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대 독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다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중국 발 미세먼지 대처법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요즘 중국 발 스모그 현상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 대기 중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발 스모그는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무연탄(석탄의 비중도 70%)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원인으로 베이징의 올해 1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993 $\mu\text{g}/\text{m}^3$ 를 기록, 이는 WHO 권고 기준의 약 40배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알갱이 크기 입자를 말합니다. 화석연료가 탈 때 생기는 독성 복합물질로 먼지 지름이 10 $\mu\text{m}$ 이하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지름이 2.5 $\mu\text{m}$ 이하로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골장 직행하기 쉽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폐포를 직접 통과하거나 혈액 속에 들어와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는 일차적으로 피부나 점막을 자극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악화시킵니다. 눈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코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기도를 자극하고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폐렴이 되고,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면 증상이 더 나빠집니다. 또한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나 조직을 노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폐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초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면 폐질환보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더 높아집니다. 초미세먼지가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악화되고,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전이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으면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건강생활수칙을 알고 이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1. 어린이, 노약자,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오랜 시간 축구 등 실외 운동을 자제합니다. 3. 부득이 실외활동을 해야 할 때는 항상 마스크, 모자,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여 먼지에 노출을 줄입니다. 4. 창문은 모두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합니다. 5. 자주 목욕하고 코를 세척합니다. 6. 오염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밤상,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현미, 보리, 콩 등 다양한 잡곡으로 밥을 짓고 풍성한 생채소와 전통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 그리고 해조류로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높입니다. 7. 채소생식을 하루 1컵 마시며, 8. 기본적으로 몸이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 당신의 향기

화향백리(花香百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난향백리(蘭香百里),  
난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덕향만리(德香萬里),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인향만리(人香萬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성심편(成心篇)의 한 구절입니다.

꽃이나 술 향기, 난이나 묵 향기보다 사람의 향기가 멀리 간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향기도 멀리가고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향기를 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향기가 나면 나비가 날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 그 향기가 퍼져 가족과 이웃과 직장동료가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지요. 또한 이 땅의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면 이 땅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여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랑으로 좇아 사랑에 이르는 법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법새라" (고후2:15-16).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갈5:22),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베후1:5-7).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발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순 화살과 같으니  
오늘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의 우리의 시간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미대복음 6장 34절)